

VIII. 후기 : 나누고 싶은 얘기들 Stories to share

1. 개혁의 첫 표적 The first sign

(요 2:1-11)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난 기적은 난해한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그런 것 중에 하나지요. 내용은,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잔치를 제일 잘하는 세 민족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만큼 잔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즐거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잔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잔칫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 졌으니 잔치가 파장이 나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유대교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에 대하여 잠깐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원래의 뜻은 "왜 나를 여기에 상관케 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여'라는 말 대신 '여인이여'라고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은 결코 낮춤말이나 흔히 쓰는 말이 아니고 유대에서는 왕후에게나 쓰는 아주 높임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예스"이겠습니까? "노"이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지요. 제가 청년사역 때 청년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상담이나 부탁을 해 올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청년들과는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오고 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부탁을 해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런 부탁을 한 것이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도리어 역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아이 미워 죽겠네"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거부가 아니고 긍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결례

항아리로 끌고 갑니다. 여섯 개의 돌 항아리! 우리에게 6이라는 숫자가 별 의미 없는 것이지만 유대인에게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을 상징하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도 나온 것이지요. 이 본문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대인의 종교예식으로 갑니다.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이 여섯 개입니다. 그 숫자가 여섯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는 말 속에는 그 속에 물이 비어있든가 부족하든가 둘 중 하나이겠지요. 여기에 유대인의 종교의식 자체가 이처럼 비어 있거나 부족하다는 불완전성을 성서는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잃어진 유대교, 불완전한 유대교의 종교예식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훑어보십시오. 2장에는 유대인의 종교의식의 중심인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3장에는 유대인의 종교의 최고 지도자중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내용부재의, 내면의 의가 사라진 얼마나 허위적인 종교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4장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 유대교의 총 관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의 한장 한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불완전한 유대교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향하려 했던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예수의 육체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도 안타깝게 얘기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5장에는 무엇이 나오니까? 연못가에 38년된 병자가 나옵니다. 유대교의 신화를 붙잡고 있는, 아무도 낫지 않아서 그 연못가에 다 누워 있는데 말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 그 헛된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시므로 말미암아 나움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지요.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 유리하는 백성들, 목자가 없는 것 같은 백성들에게 인도자가 되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7장에는 명절 끝날 실로암에서 금항아리에 물 떠오는 행렬 앞에 서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 유대종교와 종교의식의 허위성, 불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그것에 완성이 되시는가 하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 못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문제 해결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

리아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예수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내가 해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맡겨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다시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 해결이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불완전한 유대교를 새롭게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를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요, 먼저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버림 받게 된 것은 유대교를 개혁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6개의 비어있는 결레 항아리를 통해 불완전하고 비어 있던 유대인의 종교예식 또는 결레의 허구성을 보며, 채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시대의 개혁에서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넘쳐야 될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진리와 은혜가 충분해야 될 교회에 거짓과 메마름은 흔하게 드러나고 사랑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빈 결레 항아리만을 늘어놓은 잔칫집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혹시나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레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성결과 헌신을 우리의 삶에 채울 때에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이 영원히 썩지 않는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향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새로움이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원합니다.

2. 시대의 표적 (THE SIGN OF THE AGE)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눅12:56-57)

구약의 선지자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보는 자’라는 뜻이다. 무엇을 보는 사람인가, 역사를 본다는 뜻이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깊은 곳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는 것이다. 혼한 말로 하면 도를 통했다는 말도 된다. 겉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요, 나타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도 본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너희가 천지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어찌하여 숨겨진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이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의 표적’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에 드러난 것은 무엇이며 그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라는 시대를 특정 짓는 두 개의 단어는 ‘효율성’과 ‘시장성’이다, 이 두 개의 단어는 거의 절대성을 가지고 현대라는 시대위에 군림하고 있다. 품위를 위하여 천천히 걸지자로 걷는 시대가 아니다. 외관의 미를 위하여 몇 년을 걸려 조각과 장식으로 건축하는 시대가 아닌가. 가문과 조상으로 사람을 아는 시대가 아니다. 무엇이 되었던지 빨라야 하고 성냥갑처럼 네모반듯하여 공간을 최대한도로 사용하며, 직장 이름과 수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이다. 좋다는 것과 효율적이다는 것이 동의화 되어버린 시대다. 아무리 좋아도 효율성이 없으면 좋지 않은 것이다. 무공해 엔진이 나왔지만 현재 개솔린 엔진에 비해 효율성이 약하므로 쓰지 않는다.

대학에서 어떠한 인간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가, 얼마나 빨리 마치느냐가 더 관심이 되어 버린 굉장히 이상한 시대가 현대이다. 현대에 있어서 좋다는 말은 또한 성공적이라는 말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좋은 것은 성공이고 성공은 좋은 것인 것이다. 여기에서 성공이란 말의 절대 척도가 ‘시장성’이다. 좋은 생산품이나 혹은 성공적인 생산품이냐는 그 물품이 얼마나 인류복지에 이바지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목회자의 성공여부도 시장성에 의해서만 판단된다. 그의 가르침과 삶이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순수한가에 의해서 목회자의 자질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와 현금 액수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다. 이 비인간적인 현대의 ‘효율성’과 ‘시장성’ (효율성과 시장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 가치 척도로 전달된 효율성과 시장성)에 대해 교회는 그 비인간성과 위험을 지적하고 ‘인간적인 복음(gospel for humanization)’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라는 세속성에 포로화 되어 버렸다. 이스라엘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증인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듯이, 오늘의 교회(큰 의미에서)는 현대라는 세속성의 포로가 되어 있다.

현대의 포로화(modernity captivity)의 몇 가지 주요한 현상들을 살펴보자.

첫째가 제자화 운동들이다. 제자란 마음과 삶으로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몇개의 공식으로 간추려 (나는 이것을 복음의 바타민화라고 부른다) 그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제자라 부른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건만 제자화 라는 이름아래 그들은 예수 닮은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식의 세력 확장에만 열을 올린다. 현대의 제자화 운동들은 복음이 효율성과 시장성의 포로가 되어버린 대표적 케이스다.

둘째가 긍정적 사고이다. 신앙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는 신앙이 아니다. 이 논리는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이 아니다’와 똑 같은 간단한 이치인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혼돈되어 있다. 신앙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긍정적 사고의 신념은 반대로 자신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다.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인 놀만 빈센트 피엘의 대표 저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이다). 신앙은 네가 할 수 있다고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없기에 ‘주께서’이다. 신앙은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긍정적 사고는 세상의 보상을 약속하여 더 심각한 세상의 노예로 만든다.

셋째가 교리화의 현상이다. 교회사 2천년에 복음이 교리화 될 때마다 교회는 어두워졌었다. 교리화는 복음의 이론화로 복음의 생활화의 반대이다. 교리화 된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 시킨다. 그래서 믿음과 실제 삶 사이에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 외에 별로 상관이 없다. 교리화 된 교회는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원칙은 이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타협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성이 줄어들니까 말이다.

교회사에서 예수님의 실천 자체가 결론인 산상보훈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을 때마다 교회의 숫자는 적어도 순수하고 개혁적이었으며 (초대교회 시대, 중세 초기 수도원 운동들, 종교 개혁기,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18,19세기의 영, 미 부흥물결 등) 산상보훈은 원칙론이며 혹은 천국에서의 법이며 이 땅에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가르쳤을 때마다 (4세기 제국교회, 5세기 대중교회, 중세교회, 17세기 신교 교리주의, 20세기 시장성 교회 등)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어도 영적 능력은 잃고 어두웠던 것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는 점이다.

현대 포로화 현상들은 더 열거할 것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 세 가지의 공통분모는 모두가 복음의 진리정보다는 대중성에 더 치중하였다는데 있다. 그런데 주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가르침과 ‘한 알의 밀알’의 가르침과 ‘오른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가르침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가르침들은 대중성과는 정반대의 가르침들이다.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효율적인 것도 시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시대의 표적을 보아야 한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시대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의 죄성 (비인간화 현상들)을 일깨우고 개혁시켜야 한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만든 효율정보다는 진실성이, 시장성 보다는 순수성이 앞서야 한다. 믿는 자들만이라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상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